



글_ 남 기 범(No. 8117)
협회 정책연구처장/기술사

전기분야 자문형 사업관리제도의 정합성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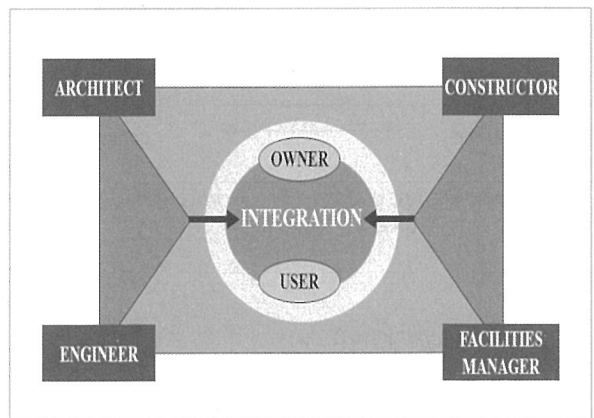
1. 서론

최근 건설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기능의 복잡화로 인해 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증가와 전기, 통신, 건설 등의 융합(Convergence)으로 기존의 프로젝트 관리기술만으로는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기자동차,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등 전통적인 메커니즘(Mechanism)과 새로운 기술 산업이 동시에 공존하고 융합되어 하나의 통합설비로 등장함에 따라 공사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력시설물 사업 management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2. 본론

2.1. CM의 개념

발주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원가(cost), 공기(schedule)를 핵심 대상으로 사업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activity)에 관여한다.



[그림 1] CM의 개념

2.2. CM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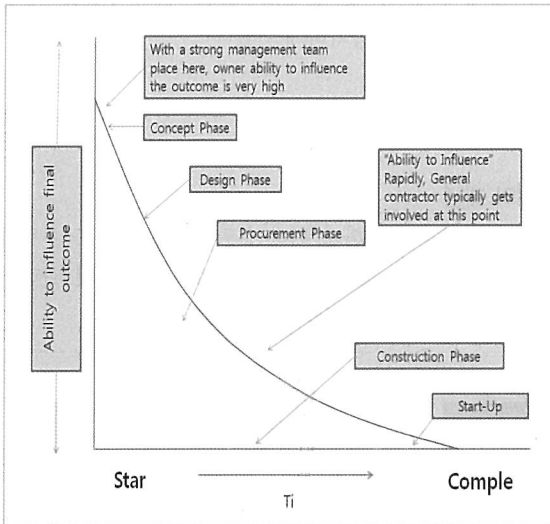
CM이란 건설 프로젝트 전(全) 생애주기 동안 시간, 비용, 범위, 품질을 관리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인 방법이며, 공사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주의 이익보장과 최소 비용으로 발주자의 건설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2.3. CM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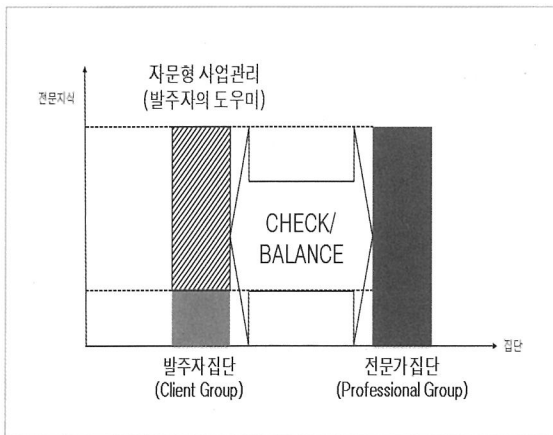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간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조정자로서의 역할 담당).

또한, 발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조안을 제공 한다(발주자의 대리인(Agency)으로서의 역할).

즉, CM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업 참여자들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분석, 종합 등의 매니지먼트 기법을 활용하여 시장분석, 원가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의 효과를 창출한다.



(출처 : Denny McGEORGE et al.(1997) Construction Management new direction)
【그림 2】 기획곡선 커브



【그림 3】 자문형 사업관리의 역할

3. 전기분야 자문형 전기사업관리 제도

3.1. 전기산업의 사업관리제도 현황

현재 전기산업 분야에서는 사업관리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시공 책임형 사업관리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의 주요 취지는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공품질 강화를 위함이며 다른 시설 공사업과의 분리발주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형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2. 전기산업의 사업관리제도 도입 로드맵

현재 전기산업에는 사업관리 도입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관리제도를 산업에 적용하려는 도입단계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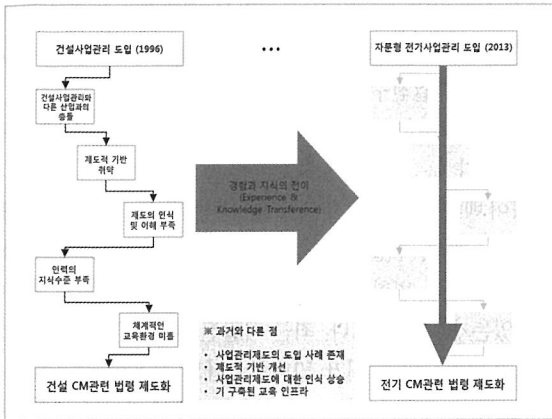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고, 기존 전기산업의 전문가와 기술자들은 사업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및 경험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관점의 사업관리 역량이 매우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단계에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 때문에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시장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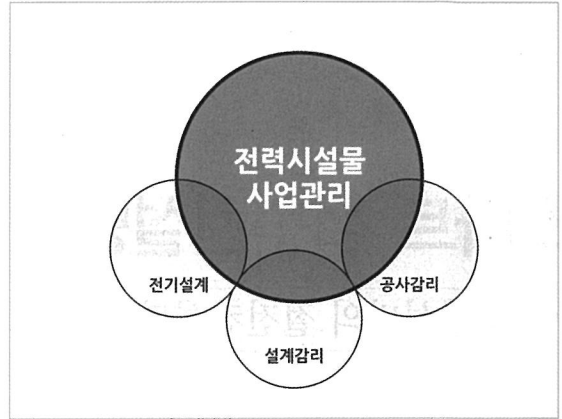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산업분야에서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전기사업관리제도의 가이드 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건설시장의 사업관리제도와와의 마찰을 줄이고 전기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영역의 전기사업관리제도 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3.3. 자문형 사업관리제도의 도입 안

자문형 전기사업관리라는 새로운 업역창출과 전기설계 및 설계·감리 그리고 공사감리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문형 전력시설물사업관리운영에 필요한 용어, 대상 공사범위, 용역능력평가 공시 및 시행규정, 등록기준 등 시장에서 자문형 전력시설물사업관리제도가 원활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국내 CM 제도 및 정책 현황과 논리 프로세스



【그림 5】 자문형사업관리 업무 Scope

4. 결론

자문형 전기사업관리 제도의 도입은 전기산업 내의 관리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건설, 소방, 통신관련 산업과의 시너지효과와 프로젝트 관리효율성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또한, 자문형 전기사업관리 제도의 도입은 융·복합화된 설비분야에서 전기분야가 관련분야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 에너지절감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름다운 명언

This is the beginning of a new day.
 You have been given
 this day to use as you will.
 You can waste it, or use it for good.
 What you do today is important
 because you are exchanging
 a day of your life for it.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당신은 주어진 오늘 하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낭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훌륭하게 활용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일을 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하다.
 소중한 인생의 하루를 그것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